

文獻에 나타난 襖衣와 現行 襖衣와의 比較研究

建陽大學校 自然科學大學 衣裳學科

助教授 劉寬順

目 次

| | |
|---------------------|---------------|
| I. 緒 論 | V. 襖衣의 形態의 比較 |
| II. 襖衣의 種類의 比較 | VI. 結 論 |
| III. 襖衣에 關聯된 用語의 比較 | 參考文獻 |
| IV. 襖衣의 衣次와 色의 比較 | ABSTRACT |

I. 緒 論

인간이 孝親의 情의 表示와 祖上崇拜의 뜻의 구현을 위해서,^{1)·2)·3)·4)} 또한 來世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關門의 意味로^{5)·6)} 보아왔던 죽음에 대한 엄격한 儀禮는 朝鮮朝의 禮에 대한 활발한 研究와 더불어 禮制 確立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7)·8)}

그런데 朱子家禮를 근거로 한 여러 著書 중에서

널리 알려진 李縉의 四禮便覽^{9)·10)·11)·12)·13)·14)·15)}

및 朝鮮朝 禮書에 나타난 喪禮에 關한 內容을 보면, 襖衣에 대한 文獻的인 內容은 現行에서의 襖衣의 內容과 多量한 差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喪禮服飾 중에서 들어가신 분에게 입혀 드리고, 관 속에 넣어드리는 禮服으로서의 襲衣인 襖衣에^{16)·17)} 대하여, 文獻에 있어서의 內容과 現行에서의 內容을 比較 研究하여, 文獻적 근거에

- 1) 朴桂弘, 韓國民俗學概論. 藝雪出版社, 1989. p.147.
- 2) 何聯奎, 中國禮俗研究. 臺灣, 中華書局, 中華民國 72. p.85.
- 3) 高福男, “죽음—來世의 永生의 根源 回歸思想”. 論壇. 淑大新報. 1981. 5. 28.
- 4) 劉寬順, “韓國 襖衣의 文獻的 考察”. 服飾. 第17號. 韓國服飾學會, 1991. 5. 28.
- 5) 白英子, 韓國의 服飾. 경춘사, 1996. pp.464~465.
- 6) 임재해, 傳統喪禮. 대원사, 1996. pp.8~15.
- 7) 趙孝順, 服飾. 대원사, 1996. p.101.
- 8) 金東旭, 韓國服飾史 研究. 亞細亞文化社, 1973. p.80.
- 9) 金斗憲, “五服制度의 研究”. 禮禮學報. 第5卷. 1936. p.43.
- 10) 李正玉, “韓國의 四禮服飾에 關한 一研究”. 研究論文集. 第8輯(自然編). 嶺南大學校, 1974. p.402.
- 11) 朴聖實, “朝鮮前期 出土服飾研究”. 服飾. 第19號. 韓國服飾學會. 1992. p.12.
- 12) 張哲秀, 韓國傳統社會의 冠婚喪祭.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8. p.11~16.
- 13) 朴惠仁, 韓國의 傳統婚禮研究. 高麗大 民族文化研究所, 1988. pp.5~6.
- 14) 劉寬順, “中國 襖衣의 文獻的 考察”. 服飾. 第25號. 韓國服飾學會, 1995. pp.105~107.
- 15) 임돈희, 祖上祭禮. 대원사, 1996. p.8.
- 16) 趙又玄, “朝鮮時代 喪服에 關한 研究”. 博士學位論文. 淑明女大 大學院. 1989. pp.156~157.
- 17) 임명미, 한국의 복식문화(II). 경춘사, 1997. p.531.

바탕을 둔 現行 襖衣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襖衣의 變遷에 관한 내용을 定立하여 襖衣에 관련된 내용 체계화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本研究의 目的을 둔다.

分析內容은 襖衣의 種類, 用語, 衣次, 色, 形態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文獻의인 내용은 「四禮便覽」을 바탕으로, 「國朝五禮儀」, 「喪禮備要」, 「家禮輯覽」, 「家禮源流」, 「家禮增解」에서의 내용을 根據로 하였고,^{18)·19)·20)·21)·22)·23)} 現行에서의 내용은 이미 발표된 本人의 論文에^{24)·25)·26)·27)}

根據하여 문헌에 제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比較 研究하였다.

II. 襖衣의 種類의 比較

文獻과 現行에서의 襖衣의 種類를 比較해 보면, <表 1>과 같다.

文獻의 內容의 女子의 경우는 內容의 제한 때문에 四禮便覽을 기준으로 하였고, 現行의 내용은 男子와 女子 共히 格式에 맞게 잘 갖춘 禮葬의 경

<表 1> 文獻과 現行 襖衣의 種類의 比較

| 區分 性別 文獻 襖衣 | 文 獻 | | | | | | | 現 行 | |
|----------------------|----------------------|----------------------|----------------------|----------------|----------------|----------------------------|----------------|-----------------------|--------------------------------|
| | 男 子 | | | | | | 女 子 | 男 子 | 女 子 |
| | 國朝五禮儀 | 喪禮備要 | 家禮輯覽 | 家禮源流 | 家禮增解 | 四禮便覽 | 四禮便覽 | | |
| 頭衣 | 首冠 網巾 幘目 充耳 | 幅巾 網巾 幘目 充耳 | 幅巾 網巾 幘目 充耳 | 幅巾 幘目 充耳 | 幅巾 幘目 充耳 | 幅巾 網巾 幘目 充耳 掩羅 | 幘目 充耳 掩羅 | 幅巾, 褻頭 網巾 幘目 | 족두리 褻頭 幘目 |
| 表衣 | 哀龍袍 褡襖 帖裏 | 深衣 褡襖 | 團領 褡襖 帖裏 | 深衣 | 深衣 | 深衣 褡襖 | 深衣 | 두루마기 道袍 深衣 | 두루마기 圓衫 |
| 上衣 | 汗衫 | 汗衫 袍襖 | 汗衫 袍襖 | 汗衫 袍襖 | 汗衫 袍襖 | 汗衫 袍襖 | 小衫 袍襖 衫子 | 직삼 저고리 | 직삼 저고리 唐衣 |
| 下衣 | 袴 | 單袴 袴 勒帛 | 袴 勒帛 | 袴 勒帛 | 袴 勒帛 | 單袴 袴 勒帛 | 單袴 袴 勒帛 | 속바지 바지 行纏 넨님 | 속속곳 바지 단속곳 속치마 걸치마 |
| 腰帶 | 大帶 | 大帶 | 大帶 | 大帶 | 大帶 | 帶 小帶 | 帶 | 道袍띠 허리띠 | 圓衫띠 |

18) 李締 編, 四禮便覽. 1844.
 19) 申叔舟 等 受命 撰, 國朝五禮儀. 1475.
 20) 申義慶 著, 喪禮備要. 1621.
 21) 金長生 輯, 家禮輯覽. 1685.
 22) 俞榮·尹宣舉 撰, 家禮源流. 1715.
 23) 李宣朝 著, 家禮增解. 1824.
 24) 劉寬順, “우리나라 襖衣에 관한 研究—朝鮮朝를 中心으로—”. 博士學位論文. 中央大學校 大學院, 1990.
 25) 劉寬順, 前掲書. 1991. pp.169~182.
 26) 劉寬順, “現行 襖衣에 관한 研究(I)”. 服飾. 第21號. 韓國服飾學會, 1993. pp.49~59.
 27) 劉寬順, “現行 襖衣에 관한 研究(II)”. 服飾. 第30號. 1996. pp.101~115.

| | | | | | | | | | |
|----|----|----|----|----|----|-----|-----|-----------------------------|-----------------------------|
| 裹肚 | 裹肚 | 裹肚 | 裹肚 | 裹肚 | 裹肚 | 裹肚 | 裹肚 | 裹肚 | 裹肚 |
| 手衣 | 握手 | 握手 | 握手 | 握手 | 握手 | 握手 | 握手 | 握手 | 握手 |
| 足衣 | 襪履 | 襪履 | 襪履 | 襪履 | 襪履 | 襪履 | 襪彩鞋 | 襪 | 襪 |
| 其他 | | 冒 | 冒 | | | 冒舉布 | 冒舉布 | 天衾, 大斂布地褥, 小斂布五囊, 大斂衾枕, 小斂衾 | 天衾, 大斂布地褥, 小斂布五囊, 大斂衾枕, 小斂衾 |

* 위 表의 文獻 部分은 國朝五禮儀(1475). 卷7. 張 11-12., 喪禮備要(1621). 卷上. 張 5-7., 家禮輯覽(1685). 卷4. 張 17-19., 家禮源流(1715). 卷6. 張 19-20., 家禮增解(1824). 卷3. 張 74-77., 四禮便覽(1844). 卷3. 喪禮1. 張 9-12의 記事에 依據하여 作成하였으며, 現行 部分은 이미 發表된 本人의 論文(註 26, 27)에 依據하여 作成하였음.

우를 기준으로 하여 表에 제시하였다.

<表 1>에서 볼 수 있듯이, 男子와 女子 모두 文獻에 나타난 冒와 掩이 現행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는 文獻에만 提示된 品目으로 中國의 規範을 그대로 본뜬 경향을 보이고 있었고, 실제로 사용되지 않은 品目이라고 생각된다.²⁸⁾

특히 文獻에서 襴衣의 種類에 속하지 않았던 枕, 五囊 등이 襴衣의 種類에 포함되어 준비하고 있었으며, 斂衣에 속했던 衾, 絞 등이 現行에서는 襴衣의 必須的인 品目이었고, 특히 絞는 斂布라는 品目으로 通用되고 있었다.

Ⅲ. 襴衣에 關聯된 用語의 比較

襴衣에 關聯된 用語의 比較에 있어서, 現行에서 독특하게 불려지는 品目を 기준으로 하였으며, <表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現行에서는 같은 品目이라도 地域에 따라서 각각 같고 다름이 있기 때문에 불려지는 그대로 인용하였고, 여러 用語들 중에서 幘目, 五囊, 襴衣, 斂布 등에 대한 名稱이 더욱 多樣함을 알 수 있었다.

Ⅳ. 襴衣의 衣次와 色의 比較

文獻과 現行에서의 襴衣의 衣次와 色을 比較해

<表 2> 襴衣에 關聯된 用語의 比較

| 文 獻 | 現 行 |
|----------------|---|
| 幘目(역목) | 면막수, 명모, 맨모, 명목, 먼모, 명막수, 면포, 낮보, 낮모, 드랑다리 |
| 五囊(오낭) | 조발낙, 조발내기, 조발람, 조발, 주머니, 조발영, 조발랭이, 손톱싸개(수발락), 발톱싸개(조발락), 조별람, 조발용 |
| 圓衫(원삼) | 나삼, 내삼, 난삼 |
| 斂(렴) | 감장 |
| 補空(보공) | 보투 |
| 握手(악수) | 손싸개, 손집, 손보 |
| 襴衣(수의), 襲衣(습의) | 호상옷, 죽음의 옷, 장래옷, 문안옷, 맹인옷, 돌아가신 분의 옷, 머슴옷, 수의복, 땅인복, 메인 옷, 평생옷, 먼 데 가는 옷, 먼 옷, 수복(아이의 경우) |
| 斂布(염포) | 장배, 멧배, 맥시배, 매장배, 매장포, 장배, 장포 |

* 위 表의 文獻 部分은 國朝五禮儀(1475). 卷7. 張 11-12., 喪禮備要(1621). 卷上. 張 5-7., 家禮輯覽(1685). 卷4. 張 17-19., 家禮源流(1715). 卷6. 張 19-20., 家禮增解(1824). 卷3. 張 74-77., 四禮便覽(1844). 卷3. 喪禮1. 張 9-12의 記事에 依據하여 作成하였으며, 現行部分은 이미 發表된 本人의 論文(註 26, 27)에 依據하여 作成하였고, 以後에 提示되는 <表 3>도 上記 文獻의 記事에 依據하여 作成하였음.

보면 <表 3>과 같으며, 現行에서는 地域별 차이가 있으므로 總괄적으로 表에 나타내었다.

28) 劉寬順, 前掲書. 1991. p.170.

〈表 3〉 文獻과 現行 襟衣의 衣次·色의 比較

| 區分 性別 文獻 衣次·色 襟衣 | 文 獻 | | | | | | | 現 行 | |
|------------------------------|-------|--------------|----------------|--------|------|-------|--------------|--------------|---|
| | 男 子 | | | | | | 女 子 | 男 子 · 女 子 | |
| | 國朝五禮儀 | 喪禮備要 | 家禮輯覽 | 家禮源流 | 家禮增解 | 四禮便覽 | 四禮便覽 | 衣次 | 色 |
| 頭衣 | 幅巾 | | 黑繪, 紬 | 皂紬 | | | 黑繪, 紬 | | |
| | 網巾 | 皂羅 | 黑繪 | 皂紵 | | | 黑繪 | | |
| | 幘目 | 靑羅, 裏: 縹紵 | 縹帛, 紬, 裏: 縹 | 縹帛 | 縹 | 縹 | 帛, 縹經裏, 紬 | 帛, 縹經裏, 紬 | |
| | 充耳 | 新綿 | 新綿 | 白縹 | 白縹 | 白縹 | 白縹, 雪綿 | 白縹, 雪綿 | |
| | 掩 | | | | | | 黑繪 | 黑繪 | |
| | 纒 | | | | | | 黑繪 | 黑繪 | |
| | 首冠 | 皂羅 | | | | | | | |
| 表衣 | 深衣 | | 白細布 | | | | 白細布 | | |
| | 圓領 | | | 黑 | | | | | |
| | 褶複 | 紵絲 | | | | | | | |
| | 帖裏 | | | | | | | | |
| | 圓衫 | | | | | | | 紬, 絹 | |
| 上衣 | 汗衫 | | 紬, 綿布 | | | | 紬, 綿布 | | |
| | 袍襖 | | | | | | | | |
| 下衣 | 單袴 | | 紬, 布 | | | | 紬, 綿布, 布 | | |
| | 袴 | 白紵 | 紬, 綿 | | | | 紬, 綿布 | | |
| | 勒帛 | | | 布 | | | 綿布 | | |
| 腰帶 | 大帶 | 白羅 | 白繪 | 表裏: 白紬 | | | | | |
| | 帶 | | | | | | | 錦 | |
| | 小帶 | | | | | | | | |
| 裹肚 | 裹肚 | 白紵 | | | | | 紬, 綿布 | 紬, 綿布 | |
| 手衣 | 握手 | 靑羅 裏: 縹紵 | 玄帛, 紬 縹裏 | 玄帛 | 帛 | 帛, 玄縹 | 帛, 紬, 縹裏 | 帛, 縹裏 | |
| 足衣 | 襪 | 白紵 | | | | | | | |
| | 履 | 赤履, 紵絲 | 黑紬, 糊紙 | 黑紬 | | | 黑絹, 布, 精紙 | | |
| 其他 | 冒 | | 紬, 絹 | | | | 紬, 絹 | 紬, 絹 | |
| | 舉布 | | | | | | 布 | 布 | |

〈表 3〉에서 볼 수 있듯이 文獻에서는 紬, 羅, 紵, 絹, 繪, 帛, 布, 絹, 綿, 錦 등의 衣次가 쓰였던 것에 비해, 現行에서는 삼배, 명주, 공단 등을 주로 사용하였다.

文獻에서의 色은 白, 靑, 縹, 白, 赤, 縹, 紵, 玄 등이 사용되었던 것에 비해, 現行에서는 白과 黑을 기본으로 白色에 가까운 연한 色을 주로 사용하였고, 기타 家庭의 習慣이나 故人의 生存時의

希望에 따랐다.

V. 襖衣의 形態의 比較

現行 襖衣의 品目 중에서 文獻에서의 形態와 현저하게 차이를 보이는 品目を 中心으로 하였으며, 女子의 品目 중 저고리·치마·바지, 男子와 女子의 共用 品目인 幘目·握手·衾·絞를 中心으로 形態의 變化를 比較하였다.

1. 저고리·치마·바지

각각 입혀졌던 文獻에서의 內容과는 달리, 現行에서는 形態적으로 속저고리에 한삼을 달은 경우도 있었고, <寫眞 1>과 같이 속적삼과 저고리를 하나의 깃에 달아 입히기에 편하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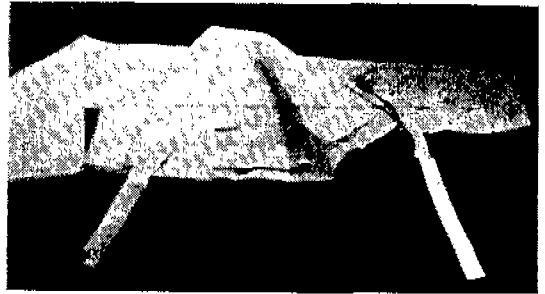
또한, 입히기에 편하도록 치마의 말기 속에 바지허리를 넣어 달은 경우(<寫眞 2>)도 있었으며, 속치마의 길이를 겹치마보다 조금 짧게 하여 속치마와 겹치마를 하나의 말기에 달은 경우(<寫眞 3>)도 있어서, 着用을 容易하게 하는 데에 主要點을 둔 것을 볼 수 있다.

2. 幘 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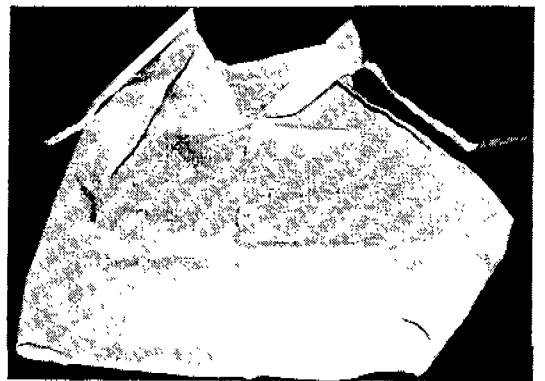
(1) 文獻에 있어서의 幘目的 形態

文獻에 있어서의 幘目的 形態는 <圖 1>, <圖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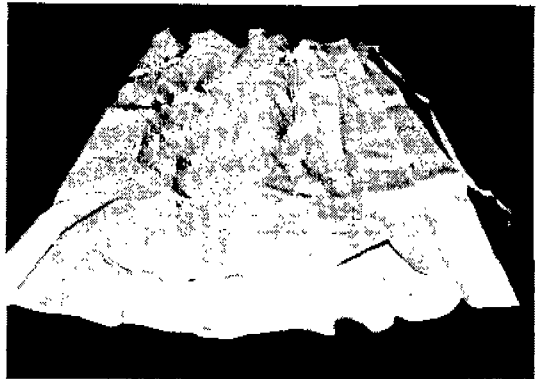
「四禮便覽」에 의하면 <士喪禮> 疏에 네모에 끈이 있다고 하였고, 註에는 솜으로서 채운다고²⁹⁾ 하였다. 「國朝五禮儀」에는 四角에 紫綃로 된 끈을 두어 뒤에서 맨다고³⁰⁾ 되어 있고, 「喪禮備要」와



<寫眞 1> 赤古里(이경옥 藏)



<寫眞 2> 치마(葬儀社藏 下品)



<寫眞 3> 치마(葬儀社藏 上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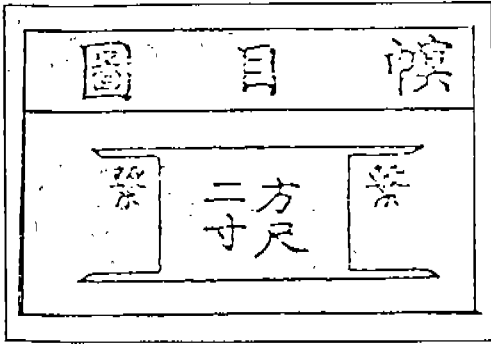
「家禮增解」에서도 솜으로 채우며 四角에 끈이 있다고 하였다.^{31)·32)}

29) 四禮便覽. 卷3. 喪禮1. 張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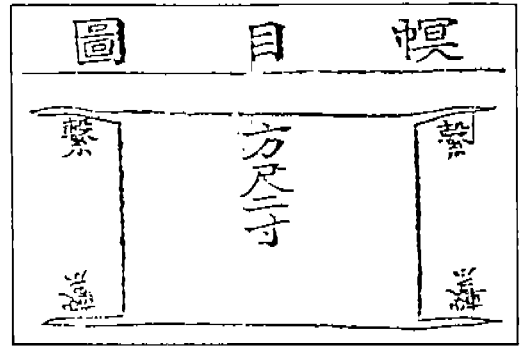
30) 國朝五禮儀. 卷7. 張12.

31) 喪禮備要. 卷3. 張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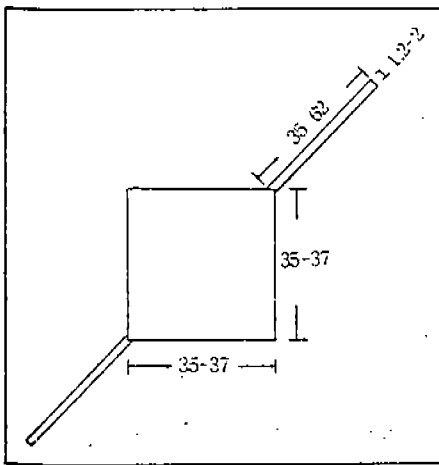
32) 家禮增解. 卷3. 張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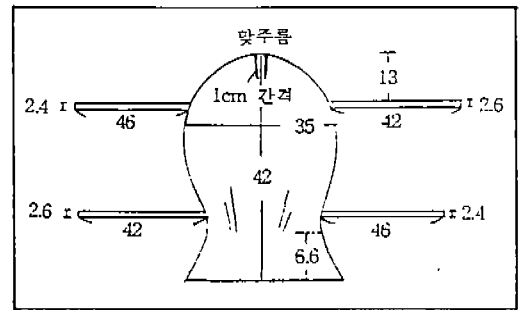
〈圖 1〉幟目圖(四禮便覽要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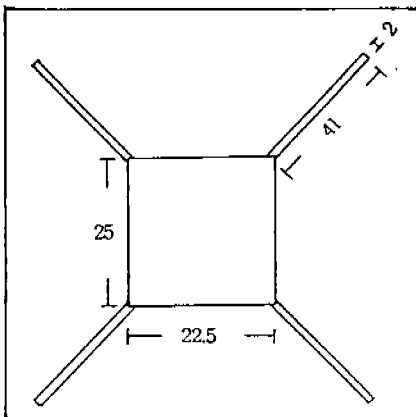
〈圖 2〉幟目圖(喪禮備要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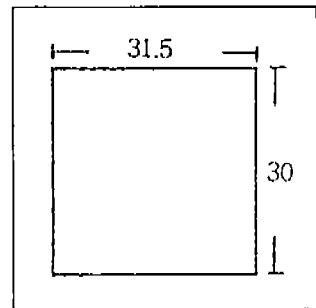
〈圖 3〉幟目(정한진·김일산·정화자·이경옥藏, 葬儀社藏 男·女上品의 模型圖)



〈圖 4〉幟目(尹寓藏의 模型圖)



〈圖 5〉幟目(양천 許氏藏의 模型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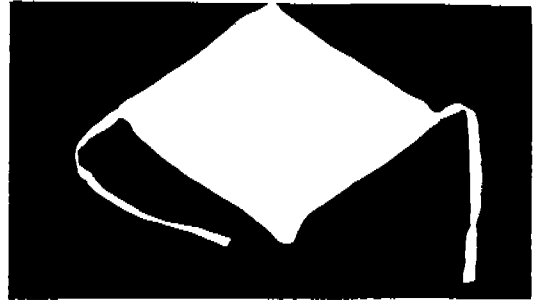
〈圖 6〉幟目(葬儀社藏 男·女 下品の 模型圖)

(2) 現行에서의 幟目の 形態

幟目の 形態는 〈圖 3〉-〈圖 6〉, 〈寫眞 4〉-〈寫眞 7〉에서 볼 수 있듯이, 길이가 25~42cm 정도로 다양하고, 폭은 22.5~37cm 정도로 다양하다. 끈의 수가 각각 다르고, 끈 길이와 폭도 다르며, 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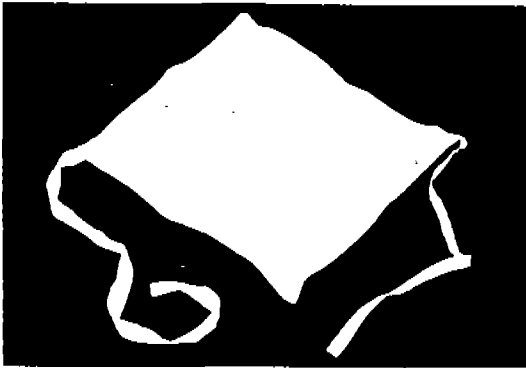
이 없는 경우(〈圖 6〉)도 있었다. 形態도 여러 가지로 정사각형에서 직사각형 또는 〈圖 4〉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形態를 나타내고 있다.

(3) 文獻과 現行에서의 幟目の 比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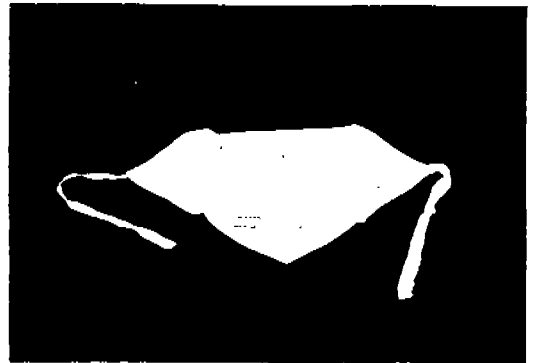


〈寫眞 5〉帔目(葬儀社藏 男子上品)

〈寫眞 4〉帔目(정한진·이경옥藏)



〈寫眞 6〉帔目(葬儀社藏 女子上品)



〈寫眞 7〉帔目(정화자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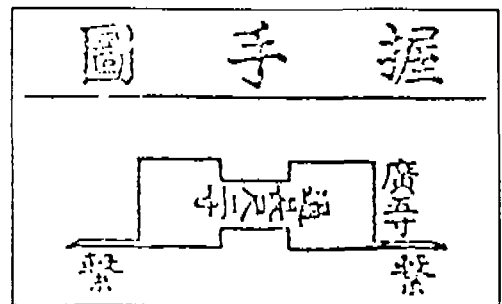
文獻에서는 帔目이 四角에 끈이 있고, 솜으로 채워져 있는 것에 비하여, 現行에서는 끈의 수도 2개, 4개인 경우와 끈이 없는 경우도 있었고, 길이와 폭, 형태도 각각 달랐다.

3. 握手

(1) 文獻에 있어서의 握手의 形態

文獻에 있어서의 握手의 形態는 〈圖 7〉, 〈圖 8〉과 같다.

握手는 「四禮便覽」, 「國朝五禮儀」, 「喪禮備要」, 「家禮考證」,³³⁾ 「家禮增解」³⁴⁾ 등에 밝혀져 있으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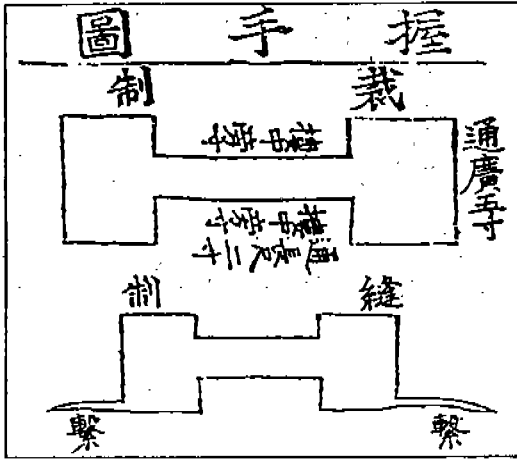


〈圖 7〉握手圖(四禮便覽裏圖)

모두 指尺을 기준으로 길이가 1尺 2寸이었고 폭이 5寸이었다. 「四禮便覽」에는 끈의 길이가 명시되어 있는데, 한 쪽은 1尺 5寸~6寸이고, 한 쪽은 3尺이

33) 曹好益 撰, 金培 等編, 家禮考證. 卷6. 張14.

34) 家禮增解. 卷3. 張75.



〈圖 8〉握手圖(喪禮備要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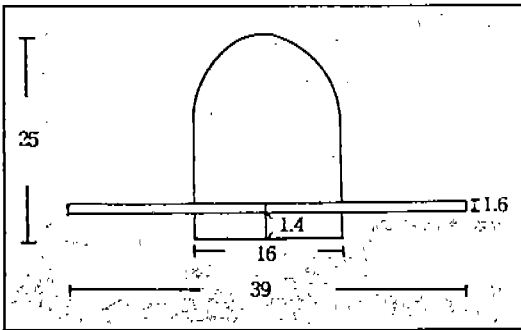
며, 솜으로 채우고 양 끝 아래 모서리에 있는 끈으로 손바닥 뒤에서 맨다고 되어 있다.³⁵⁾

(2) 現行에서의 握手의 形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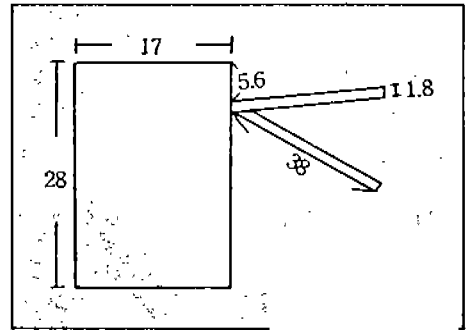
現行에서의 握手의 形態를 보면 〈圖 9〉-〈圖 14〉, 〈寫眞 8〉-〈寫眞 12〉에서 볼 수 있듯이, 길이가 13.5~28cm 정도로 다양하고, 폭도 16~34cm 정도로 다양하다.

形態도 각각 차이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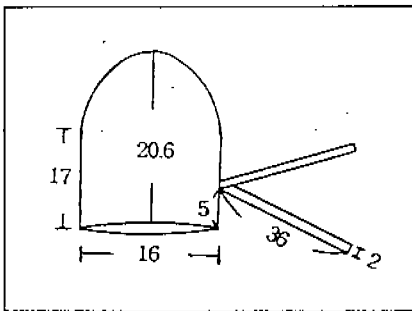
(3) 文獻과 現行에서의 握手의 比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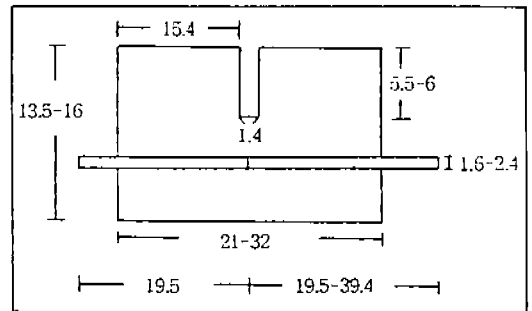
〈圖 9〉握手(葬儀社藏 男子上品の 模型圖)



〈圖 10〉握手(葬儀社藏 男·女下品の 模型圖)



〈圖 11〉握手(정화사藏의 模型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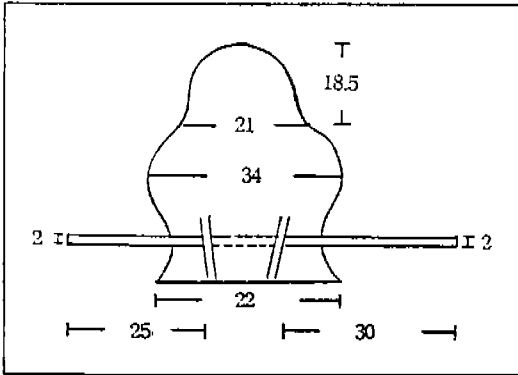


〈圖 12〉握手(정화사藏, 葬儀社藏 女子上品の 模型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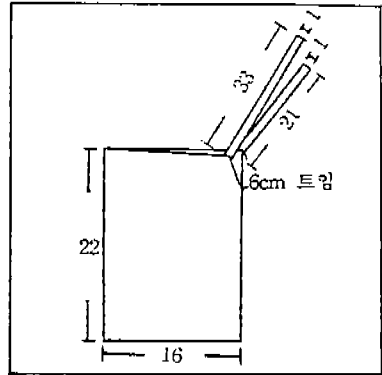
文獻에서의 形態와는 달리, 現行 握手의 形態는 삼면이 막히고 한쪽 면만 터 놓은 자루모양이 많았으며, 전체적인 형태도 四角形, 손목부분은 四角形이고 손가락이 놓이는 부분은 둥글게 처리한

형태에 끈의 위치는 손목 부분 쪽에 위치한 경우가 많았고, 끈의 위치가 손등 부분에 위치한 형태도 있었다. 握手 역시 文獻과 現行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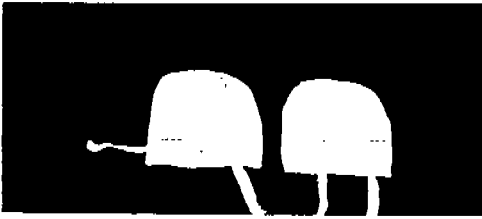
35) 四禮使覽. 卷3. 喪禮1. 張10.



〈圖 13〉握手(伊寓藏의 模型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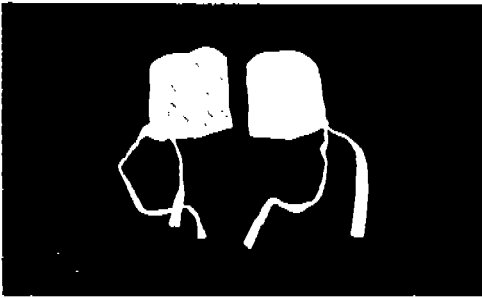
〈圖 14〉握手(김일산藏의 模型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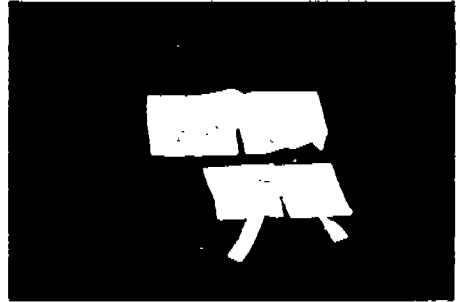
〈寫眞 8〉握手(葬儀社藏 男子上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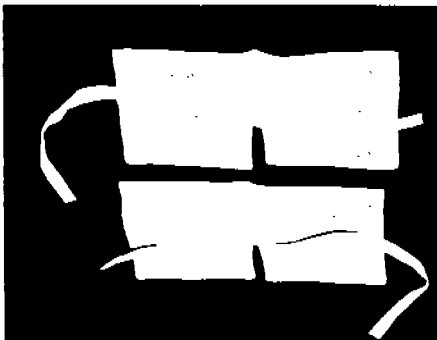
〈寫眞 9〉握手(葬儀社藏 男·女下品)



〈寫眞 10〉握手(정한진藏)



〈寫眞 11〉握手(정화자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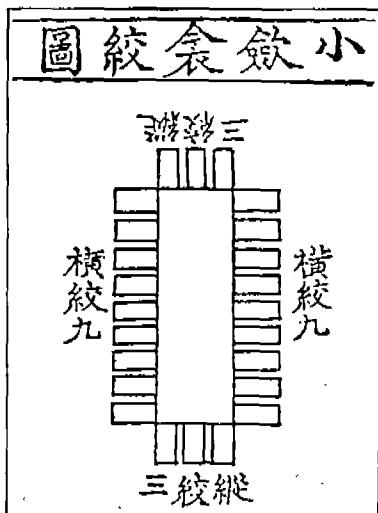
〈寫眞 12〉握手(葬儀社藏 女子上品)

4. 衾·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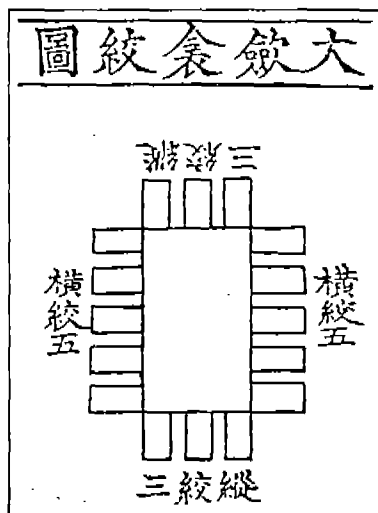
(1) 文獻에 있어서의 衾·絞의 形態

小斂衾은 綿을 든다. 身體의 長短에 따라 마름
질하고 길이는 5尺 반쯤으로 한다. 〈士喪禮〉에 緇
衾頰裹라고 하여 짙은 검은 색, 안은 붉은 색임을
알 수 있고, 註에는 모든 衾은 5幅이라고 하였다.

小斂絞는 鍛濯한 緇布를 사용하여 만드는데, 세
로 1폭은 길이가 10척쯤 되고, 양 끝을 쪼개어서



〈圖 15〉小斂衾紋圖(四禮便覽喪圖)



〈圖 16〉大斂衾紋圖(四禮便覽喪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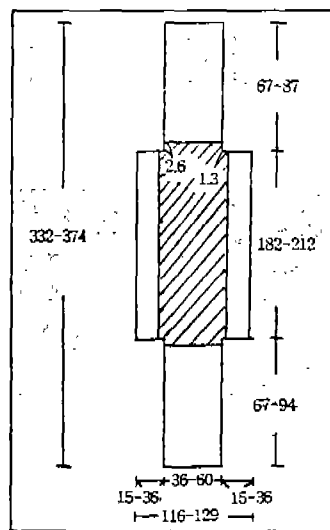
각기 3조각으로 만들며 그 폭 중간의 3분의 2는 남겨두고 조개지 않는다. 가로 3폭은 길이가 각기 4尺 혹은 3尺 정도이며, 매 폭의 양 끝을 각각 조개어서 3조각으로 만들고, 그 폭의 중간 8寸 좁은 남겨두어 조개지 않는다. 小斂衾과 小斂衾紋의 形態를 보면 〈圖 15〉와 같다.³⁶⁾

「喪禮備要」에 의하면, 2개의 衾 중 하나는 받쳐 끼는 것으로, 막 죽었을 때 덮는 것이고 하나는 大斂때에 덮는 것이라고 하였다.³⁷⁾

大斂紋는 鍛濯한 細布를 사용하여 만드는데, 세로 1폭은 그 양 끝을 조개서 각각 3조각으로 만들며, 小斂 때와 같다. 가로는 2폭을 쓰는데, 매 폭을 셋으로 조개서 6조각으로 만들어 그 하나는 버리고 쓰지 않는다.布가 좁으면 3폭을 써서 매 폭을 반으로 조개어 6조각으로 만들어 그 하나를 버린다. 모두 小斂紋보다 약간 길며, 그 形態를 보면 〈圖 16〉과 같다.³⁸⁾

(2) 現行에서의 衾·絞의 形態

現行에서의 衾의 形態는 文獻에서의 形態와 유



〈圖 17〉斂布(尹富藏, 葬儀社藏 男·女 上品의 模型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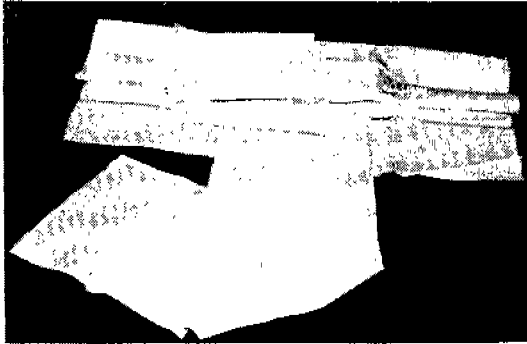
사하여, 小斂衾·大斂衾 모두 직사각형의 形態이다. 小斂衾의 길이는 148~251cm 정도이며, 폭은 100~118cm 정도이고, 大斂衾의 길이는 176~356cm, 폭은 112~135cm 정도의 크기이다.

絞는 現行에서는 斂布라는 명칭으로 사용되는

36) 四禮便覽. 卷3. 喪禮1. 喪圖. 張2.

37) 喪禮備要. 卷上. 張 18~19.

38) 四禮便覽. 卷3. 喪禮1. 喪圖. 張2.



〈寫眞 13〉斂布(葬儀社藏 女子 上品)

경우가 많은데, 길이가 332~374cm, 폭이 116~129cm 정도의 크기로서, 모두가 〈圖 17〉과 같이 縱과 橫을 한꺼번에 꿰매어서 十字 모양이다. 十字의 위, 아래, 좌우의 여러 가닥으로 갈라서 묶는 부분은 홀이고, 尸身이 놓이는 부분(斜線部分)은 겹으로 한 경우도 있었고, 〈寫眞 13〉과 같이 삼베의 세 폭을 나란히 놓아 가운데의 길이는 길게, 좌우의 길이는 짧게 하여 꿰맨 경우도 있었다.

(3) 文獻과 現行에서의 衾·絞의 比較

衾의 形態는 現行과 文獻에서 모두 유사한 형태를 보인 것에 비하여, 絞는 十字 形態로의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아마도 간소화하는 뜻에서 시행된 것으로 간주된다.

VI. 結 論

이상과 같이 襚衣의 種類, 用語, 衣次, 色, 形態 등에 관하여 文獻의 內容과 現行에서의 內容을 비교해 본 결과 다음과 같다.

1. 襚衣의 種類에 있어서 文獻에서의 冒와 掩은 現行品目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五囊, 枕, 衾, 絞 등이 필수 品目이었다.
2. 用語에 있어서는, 現行에서 幙目, 五囊, 襚衣, 斂布 등에 대한 명칭이 다양하게 불려지고 있었다.
3. 衣次와 色에 있어서는, 文獻에서의 다양함에

비하여, 現行에서는 삼베와 명주를 중심으로 한 白色에 가까운 연한 색이 주로 사용되었다.

4. 形態에 있어서는 文獻에서의 각각의 品目에 비하여, 現行에서는 입히기에 편하도록 바지와 치마허리를 같이 다는 경우, 속치마와 겹치마를 한 말기에 다는 경우, 적삼과 저고리를 하나의 깃에 다는 경우 등 形態와 縫裁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絞에 있어서도 斂布라는 명칭으로 十字 形態로 준비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制限된 文獻의 범위 내에서 襚衣의 種類, 用語, 衣次, 色, 形態 등에 대한 內容을 現行에서의 변화된 모습과 比較하여 보았는데, 앞으로 文獻의 內容分析을 擴大하고, 現行 襚衣의 形態와 時代가 確實한 出土服飾 襚衣와의 形態도 比較하며, 나아가 現行 襚衣의 地域의 研究가 深度 있게 이루어져 差別化된 內容을 體系의 樹立한다면, 襚衣의 比較 研究에 한층 더 發展된 結果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參考文獻

- 金長生 輯, 家禮輯覽.
- 申叔舟 等 受命 編, 國朝五禮儀.
- 申義慶 著, 喪禮備要.
- 俞榮·尹宣舉 撰, 家禮源流.
- 李宣朝 著, 家禮增解.
- 李絳 編, 四禮便覽.
- 曹好益 撰, 金塔 等 編, 家禮考證.
- 高福男, “죽음—來世의 永生의 根源 回歸思想”. 論壇. 淑大新報. 1981. 5. 28.
- 金東旭, 韓國服飾史研究. 亞細亞文化社, 1973.
- 金斗憲, “五服制度의 研究”. 震檀學報, 第5卷. 1936.
- 金漢重, 安東誌. 故鄉文化社, 1987.
- 文化公報部 文化財 管理局,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 1冊. 全南篇. 서울. 文化財管理局, 1968.
- _____, 上揭書. 2冊. 全北篇.

- 1969.
- _____, 上掲書. 3冊. 慶南篇.
 - 1971.
 - _____, 上掲書. 4冊. 慶北篇.
 - 1972.
 - _____, 上掲書. 5冊. 濟州篇.
 - 1973.
 - _____, 上掲書. 6冊. 忠南篇.
 - 1973.
 - _____, 上掲書. 7冊. 忠北篇.
 - 1974.
 - _____, 上掲書. 8冊. 江原篇.
 - 1976.
 - _____, 上掲書. 9冊. 京畿篇.
 - 1977.
 - _____, 上掲書. 10冊. 서울篇.
 - 1978.
 - _____, 上掲書. 11冊. 黃海·平北·平南篇. 1979.
 - _____, 上掲書. 12冊. 咸北·咸南篇. 1980.
 - _____, 上掲書. 17冊. 衣生活篇. 1986.
 - _____, 上掲書. 18冊. 禮節篇. 1987.
 - 三陟郡, 三陟郡誌. 1985.
 - 朴京子, 韓國服飾論攷. 新丘文化社, 1983.
 - 朴桂弘, 韓國民俗學概論. 螢雪出版社, 1989.
 - 朴聖實, “朝鮮前期 出土服飾研究”. 服飾. 第19號. 韓國服飾學會, 1992.
 - 朴惠仁, 韓國의 傳統婚禮研究. 高麗大 民族文化研究所, 1988.
 - 白英子, 한국의 복식. 경춘사, 1996.
 - 石宙善, 韓國服飾史. 寶晉齋, 1985.
 - 成峇姬, “狻襲考”. 論文集. 第8輯. 關東大, 1980.
 - 孫敬子·金英淑, 韓國服飾史資料選集. III. 교문사, 1982.
 - 嶺南大學校 人文科學研究所, 大邱의 禮樂. 嶺南大學校 出版部, 1988.
 - 劉寬順, “우리 나라 襖衣에 관한 研究-朝鮮朝를 中心으로-”. 博士學位論文. 中央大學校 大學院, 1990.
 - 劉寬順, “韓國 襖衣의 文獻的 考察”. 服飾. 第17號. 韓國服飾學會, 1991.
 - 劉寬順, “現行 襖衣에 관한 研究(I)”. 服飾. 第21號. 韓國服飾學會, 1993.
 - 劉寬順, “中國 襖衣의 文獻的 考察”. 服飾. 第25號. 韓國服飾學會, 1995.
 - 劉寬順, “現行 襖衣에 관한 研究(II)”. 服飾. 第30號. 韓國服飾學會, 1996.
 - 劉頌玉, “四禮服飾”. 韓國의 服飾. 韓國文化財保護協會, 1982.
 - 柳喜卿, 韓國服飾史 研究. 梨花女大 出版部, 1983.
 - 李家源, 冠婚喪祭. 三榮文化社, 1985.
 - 李鐘哲, “陰城 良俗마을의 喪禮”. 韓國民俗學. 12輯. 民俗學會, 1980.
 - 李正玉, “韓國의 四禮服飾에 관한 一研究”. 研究論文集. 第8輯(自然篇). 嶺南大學校 出版部, 1974.
 - 임돈희, 祖上祭禮. 대원사, 1996.
 - 임명미, 한국의 복식문화(II). 경춘사, 1997.
 - 임재래, 傳統喪禮. 대원사, 1996.
 - 張瑄鎮, “山淸地方의 喪禮俗考”. 國語國文學. 釜山大學校 國文科, 1988.
 - 張哲秀, 韓國傳統社會의 冠婚喪祭.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8.
 - 張哲秀, “冠婚喪祭”. 慶北 北部 地域의 傳統文化. 安東大學校 安東文化研究所, 1988.
 - 全英淑, “壽衣에 관한 研究”. 韓國衣類學會誌. 第1卷 2號. 韓國衣類學會, 1977.
 - 趙陽弟, 冠婚喪祭. 一信書籍公社, 1980.
 - 趙又玄, “朝鮮時代 喪服에 관한 研究.” 博士學位論文. 淑明女大 大學院, 1989.

- 趙孝順, 韓國服飾風俗史 研究. 一志社, 1988.
- 趙孝順, 服飾. 대원사, 1996.
- 崔承洵·李基遠, 太白的 禮俗(上). 江原日報社, 1977.
- 崔喆·韓玉洙·白弘基, 太白的 禮俗(下). 江原日報社, 1977.
- 春川文化院, 春洲誌. 1984.
- 華川文化院, 華川郡誌. 1988.
- 會寧郡民會, 會寧郡誌. 1978.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Literature of Korean and Current Shroud

Comparison the literature of Korean Shroud with Current Shroud are as follows.

1. The Mo(冒) and Ŏm(掩) were not included in current shroud.

Onang(五囊), Ch'im(枕), Kum(衾) and Kyo(絞) were included in current shroud.

2. Terms of the current shroud were various than the literature of korean shroud.

3. The cloths of the literature of korean shroud were Chu(紬), Chung(繪), P'o(布), Ch'o(絹) and Kyon(絹), etc. But the cloths in the current shroud were Myongchu(明紬), Sambе(大麻) and Kongdan(貢緞).

The color of the literature of korean shroud were various, but in the current shroud was light color center upon the white color.

4. The shape of the current shroud was various.